

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p < 0.05$). 환자군에서 알코올 섭취는 대조군과 비슷하였으나, 흡연률은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위암환자들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염분의 함량이 높은 것갈류, 라면, 햄, 소시지, 찌개류, 외식의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구워서 섭취하는 살코기, 내장육, 고등어의 섭취빈도도 높았다. 반면 대두, 채소류의 섭취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2-7]

유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의요법 관련 문의사항 조사

김수안 · 손정민 · 박미영¹⁾ · 채동완²⁾

유지투석환자에 있어 영양소섭취 조절을 통한 적절한 영양상태 유지는 합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혈액투석시의 식사의요법은 제한이 필요한 영양소 위주의 내용이므로 실생활에서 장기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영양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에 그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식사의요법에 관해 문의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4년 3월 경인지역 거주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신장질환의 이환 기간 및 식사의요법 관련 문의 사항을 설문조사하였다. 식사의요법에 대한 어려운 점과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환자가 직접 질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복수 질문을 허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중 회신을 받은 83건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설문에 대한 회신자의 평균 연령은 62.6 ± 9.76 세였으며, 남 63.5%, 여 36.5%였다. 신장질환 이환 기간은 1년 미만 16%, 1~5년 55%, 5~10년 24%, 10년 이상 22%로 나타났다. 83명의 환자에서 식사의요법에 대한 질문 70건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 50건으로 총 120건의 질문이 있었다. 식사의요법에 대한 질문 70건 중 식사의요법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된 질문 30%, 금지식품에 대한 내용과 특정식품 섭취 가능여부 및 적정 섭취량을 묻는 질문 30%로, 60%에 해당되는 주된 질문의 내용은 영양사에 의한 일반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에게 식사의요법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고, 이미 영양교육을 받은 유지투석 환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식사의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몸에 좋은(보약이 되는)음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16.6%, 바람직한 식단에 대한 질문은 8.6%, 외식시의 식사의요법에 대한 질문 2.9%, 수분 조절 방법에 대한 질문 2.9%, 빈혈에 도움이 되는 식품 질문 2.9%, 변비해소방법에 대한 질문 1.4%로 나타나, 식사의요법 교육 시 실생활에서 환자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에 따른 선택 및 섭취 방법, 구체적인 식단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문은 50건 모두 섭취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보약(한약)섭취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37.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홍삼(29.7%), 인삼(13.5%) 섭취가 가능한지, 동충하초(8.1%), 키토산(8.1%), 가시오가피(5.4%), 상황버섯(5.4%), 클로렐라(5.4%), 칩즙(5.4%) 섭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 순이었다. 따라서 투석환자 역시 시중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들의 이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된 결과로 보아 투석환자의 경우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투석초기의 일회적인 영양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료진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식사의요법에 대한 개론적인 원리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방법 및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기능식품을 파악 하여 이들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선택 및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P2-8]

유방암 발생 위험과 관련된 상용 식품 섭취량에 관한 연구

김은영¹⁾ · 천누리 · 김미현 · 홍영선¹⁾ · 전해명²⁾ · 성미경 · 승정자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모병원 중앙내과¹⁾, 성모병원 일반외과²⁾

2002년 암 발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유방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방암 발생은 특히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여성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를